12일 검찰에 송치되며 제주동부서를 나서고 있는 고유정(왼쪽)과 분노를 표출하는 피해자 유가족들(오른쪽). 강희만기자

고유정 검찰 송치되던 날…

고개 푹 숙인채 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려
"후회하느냐"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
피해자 유가족들 동부서 찾아 분노 표출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서 검찰로 호송되는 과정을 참관한 유가족들은 소리를 지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씨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동부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고씨는 검은색 치마와 니트를 입었고, 고개를 푹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호송차로 향했다.

"우발적 범행이 맞느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후회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호송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고개를 들어라", "왜 살인자를 보호해주냐"며 격분한 모습을 보였고, 고씨가 탑승한 호송차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박기남 동부서장을 찾아 고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신상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가족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가지다. 고유정의 얼굴공개와 사형 선고, 그리고 조속한 시신 수습"이라며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실상 고유정의 민낯을 볼수 없었다. 남녀 문제를 떠나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후 단서를 찾기 위해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손에 흙이 묻지 않았던 적이 없다"며 "고유정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사형 선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에서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두 차례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했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도 전문도구를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송은범기자

6·13 지방선거 1년… 선거법위반 '희비'

치열한 난타전으로 총 32명 재판행
원 지사 벌금 80만원… 지사직 유지
도의원 2명 1심서 '무죄'와 '당선무효'

6·13 지방선거가 1년이 지났다. 전에 없던 치열한 선거전으로 인해 검찰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 총 3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일부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항소전을 벌이면서 '직'을 사수하기 위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까스로 유지**=원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원희룡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14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원 지사는 가까스로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원 지사의 55번째 생일이었다.

반면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보관 강모(55)씨와 언론비서관 고모(41)씨는 지난달 23일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아 면직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무죄는 받았지만…**=양영식(연동갑·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은 선거 당시 지인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단순히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당선 무효 위기**=임상필 도의원(대천·중문·예래동·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 김모(61)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김씨가 지난해 4월과 6월 선거구민 등 4명에게 22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현재 김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올 여름 해수욕장내 사고 없기를…"

도소방본부, 11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소방당국이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지정 해수욕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소방대원인 안전팀장,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안전팀장 30명은 해수욕장 11곳(이호, 삼양, 중문, 협재, 금능, 화순, 곽지, 함덕, 김녕, 표선, 신양)에 배치돼 오는 17~19일 의용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수상인명구조,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해 특별교육한다. 교육이 끝나면 각 팀장들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 과정에서 지휘, 조정, 통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의용소방대원은 수변안전요원 역할을 하며 1일 2개조로 나눠 해수욕장 주변을 순찰한다.

또 소방안전본부는 이용객이 많은 주요 해수욕장 4곳(이호, 중문, 협재, 함덕)에서는 해수욕장 구급대를 운영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물놀이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수영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인명 39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57명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6939건에 이르는 안전사고에 대처했다. 김현석기자

학교 밖 위기청소년 도교육청 지원 모색

제주자치도교육청은 12일부터 2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6곳에 대해 업무협의 방문을 실시한다.

이번 유관기관 방문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해 기관 간 정보 연계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문기관은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다.

도교육청은 경찰서, 도청 및 상담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 범위와 역할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지법, 사건기록 조작경찰관 선고 유예

2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처리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면직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12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경위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 경위는 지난 2015년 발생해 자신에게 배당된 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사건 2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 2년 뒤인 2017년 12월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처리가 이뤄진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록을 위작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청탁을 받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경찰 생활 동안 수차례 표창을 받고 2번 특진하는 등 근무 성과가 우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국유지 무단점용 50대女

지법, 집유·벌금 300만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6년 11월 서귀포시에 위치한 국유지에서 신고 없이 단층 건물을 건축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총 123㎡를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맛과 향이 좋은 감귤(만감)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 하하농법만이 해결책이다

당
H2O+CO2+햇빛(광)조화 => 당상승
◎ 꽃이 성냥개비 ◎ 꽃이 콩알 ◎ 2차낙과 후 일주일 간격 2회
◎ 과일색이 탈색될때 3회 => 해피한그린 + 글루칼 엽면시비

양낭(갑)
내피를 양낭막 또는 양낭이라 하는데
양낭을 부드럽고 씹히는 정도가 가볍게 하려면 =>
봄순이 녹화되면 첫 세근(뿌리)발생시 자연(천연) 가리가
9% 들어있는 하이휴믹 토양관주

향
감귤(만감)을 먹고나서 여운의 향을 입안에 퍼지기 위해 착색시 =>
해피한그린 + 글루칼 + 팡이엔 을 2번 엽면시비

해피한그린 이온이 3개인 희토 원소가 들어있는 복합생육조절제
글루칼 포도당 칼슘(글루콘산)으로 높은 흡수율을 자랑
팡이엔 고기능 식이유황(MSM)함유된 환경친화적인 고기능 생육 촉진제
하이휴믹 알카리성 천연가리(K-부식산)로 친수성이 뛰어난 포타슘 휴믹산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쇼날FRP페인트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서귀포시정 소식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알림

○ 기준일 : 2019년 1월 1일
○ 공시내용 : 필지별 단위면적당 가격(원/㎡) / 총 229,192필지
○ 이의신청 기간 : 2019. 5. 31 ~ 7. 1
○ 신청대상 : 결정지가와 실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많거나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서귀포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처리절차 : 토지특성 및 지가의 형평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760-2143~2147)

서귀포시민대학 제1회 글로벌아카데미 개최 알림

○ 일시 : 2019. 6. 19(수) 14:00~16:00
○ 장소 : 대정읍사무소 2층 회의실
○ 대상 : 서귀포시민 누구나
○ 내용 : 이완국 강사의 '웃음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특강
○ 참여방법 : 당일 선착순 입장
○ 수 강 료 : 무료
○ 문의전화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760-3873)

도립서귀포합창단 제62회 정기연주회 개최 알림

○ 공연일시 : 2019. 6. 20(목) 19:30
○ 공연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 공연주제 : 브람스 '독일 레퀴엠'
○ 지 휘 : 상임지휘자 최상윤
○ 협 연 : 소프라노 유소영, 바리톤 김승철, 팀파니 곽현종
○ 관 람 료 : 무료 / 8세 이상 입장가능
○ 공연문의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760-2494), 합창단(☎739-5272)